

소비자



직장인들, 사무실서 운동해 볼까

'여름 몸짱, 틈새운동으로 준비하라'

다가오는 여름을 앞두고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용품을 찾는 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야근 등으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직장인들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도록 만든 '오피스 틈새운동 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19일 인터넷 쇼핑몰 옥션(www.auction.co.kr)에 따르면 이달 들어 종합쇼핑몰사이트 '어바웃'에서 운동과 줄넘기 등의 키워드 검색은 지난 달 같은 기간보다 55%나 늘어났다.

옥션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제품은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 등 짧은 시간에 잠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사용자의 취미에 따라 골프와 에어로빅, 줄넘기 등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인기를 끄는 품목들은 평균 5만원 내외의 제품들로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여름철 앞두고 시간·장소 자유로운 틈새운동 인기

줄넘기 등 오피스 용품부터 신체 보정 제품까지 다양

대표적인 상품은 스크린골프 열풍을 타고 직장인들이 좁은 공간에서도 골프연습을 즐길 수 있는 골프스윙연습기(18만원)다.

'디지털줄넘기'(1만원)는 판매량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5%나 증가했다. 제품에 탑재된 LCD 화면에 줄넘기 횟수와 운동시간,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해 운동효과를 쉽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운동 스케줄을 짤 수 있는 특징. '이큐빅 에어보드'(8만 7000원)는 가로·세로 각 1m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점프와 에어로빅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AB스윙프로'(2만 9900원)와 '허리미'(5만 9800원) 등은 좌우 슬라이드 방식을 통해 허리와 다리, 복근 등의 균형을 강화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간단하지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직장인들이 책상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목강화 균형기(4800원), 손목근력기(2만 5000원), 악력기(7만 8000원) 등도 인기다. 사무실 안에서 이동할 때 하체근력을 키워주는 '까치발 슬리퍼'(2만 2500원), 책상에 앉은 체로 다리 균형을 키우는 '하체단련기'(11만 8000원)도 즐겨 찾는 '오피스 틈새운동 용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무실 내에서 운동이 어려운 직장인들은 신체 보정 제품을 찾고 있다.

'온니포유 애플힙'(23만 1900원)은 사과처럼 불룩하고 예쁜 모양의 엉덩이를 위한 교정 제품으로, 사무실 의사에 방석처럼 착석하면 골반교정은 물론 하프업을 도와준다는 것이 제조사의 설명. 이외에도 밸런스 쿠션과 다이어트 패치 등 작은 공간에

서 시간은 없지만 '운동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인기 품목에 올라 있다.

직장인 최모(34)씨는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을 계획중인데, 바닷가에서 자신있는 몸매를 선보이려면 미리 운동을 통해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사무실에서도 줄넘기 등을 이용해 꾸준히 단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옵션 관계자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용품들은 사이즈가 작고 보관도 쉬워 최근 매출이 급증세"라며 "새로운 방식의 운동기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이큐빅 에어보드'

홈플러스 '착한 콩나물' 25일까지 1000원 판매

'착한 콩나물 1000원'

홈플러스가 25일까지 국내산 무농약 콩나물(400g)과 수입산 콩나물(1kg)을 국내 최저가 1000원에 판매한다.

과거가의 콩나물 판매는 창립 12주년을 기념해 지난 3월 선보인 이후 홈플러스가 기획한 두 번째 행사다.

첫 판매 당시 단일상품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85만봉(340톤)이 팔려나가는 등 고객 호응이 좋아 다시 한번 초특가 판매를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

고객 맞춤판매를 위해 이번 행사에서는 수입산 대용량(1kg) 상품도 선보인다. 다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하루 1인 구매량은 2봉으로 한정했다.

같은 기간, 찌개용 두부(국내산·210g)와 부침용 두부(수입산·420g)도 시중 판매가의 반값인 1000원에 판매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국의 모든 '순희'에게 드립니다

보해, 300만병 돌파 이벤트

"순희가 '순희'를 찾습니다!"

보해가 전국의 '순희'들에게 파스퇴르 막걸리 '순희'를 증정하는 행사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보해는 지난 3월 출시한 파스퇴르 막걸리 '순희'의 300만병 돌파 기념으로 전국의 순희 이름을 가진 300명의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막걸리 '순희'를 증정한다.

'순희'와 '순이' 이름을 가진 소비자만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순희 브랜드 홈페이지(www.bohaesoony.co.kr)에 접속해 실명인증 뒤 행사에 응모하면 300명을 뽑아 12번들이 순희 한 상자를 준다.

순희는 출시 한 달만에 판매 100만병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또 최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 대형마트에 입

순희 300만병 판매돌파 기념이벤트



점,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처음 제품을 출시했을 때 순희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에게 '왜 내 이름을 술 이름으로 쓰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며 "이를 양해해 주신 전국의 순희'에 대한 보답의 뜻으로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보해양조는 올해 순희 막걸리 3000만병을 팔아 시장 점유율을 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남양유업 커피믹스 中서도 마신다

'프렌치카페' 수출

남양유업이 자사의 즉석커피 제품 '프렌치카페 카페믹스'를 다음달 중국과 카자흐스탄에 수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외산 브랜드가 아닌 '토종' 커피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국내 회사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남양유업이 지난해 12월 커피믹스 시장에 뛰어든지 반년만이다.

남양유업은 우선 분유 제품으로 판로를 구축해놓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1000만달러 어치를 수출할 목표를 세웠다. 또 호주와 러시아, 몽골, 베트남, 미주 등에도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인 커피믹스의 장점을 세계에 알려 '커피믹스'의 세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다.

중국은 지난해 커피믹스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13% 커지는 등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다국적 식품 기업인 네슬레가 시장점유율의 60%, 미국의 크래프트가 '믹스웰'로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식품 사고로 중국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터라 카세인나트륨 대신 무지방 우유를 넣은 우리 제품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프렌치카페' 수출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페인트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차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친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 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엔지 방수, 비단재 전문생산업체
이엔지 미화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제작·판매·설치·설명

제작·판매·설치·설명